



#태양을 삼킨 여자
#분위기 있는 조명 만들기
#조명 디자인

빛으로 서사를 밝히다

MBC 일일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조명 제작 후기

글. 은동훈 MBC 제작기술국 조명감독

들어가며

최근 웨이브와 넷플릭스 등 국내외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젊은 연출들을 중심으로 룩(Look)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룩을 결정하는 데 조명의 영향이 크므로, 리허설부터 연출과 구체적인 룩의 방향을 상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일일드라마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룩을 만들고, 더 좋은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한다는 점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림 1. 여러 OTT 속 장면들(디즈니 플러스 <카지노>, 넷플릭스 <수리남>)

특이 사항

이번 MBC 일일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의 조명적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FS(풀샷)과 BS(바스트샷)을 끊어갔습니다. 모든 BS는 아니지만 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BS는 끊어서 진행했습니다. 조명 입장에서 끊어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조명이 최대한 인물 가까이 붙을수록 더 넓은 면적의 광원이 인물을 조명하기에 그림자가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BS를 끊어갈 때면 실제 ENG 녹화하듯이, 항상 카메라 옆으로 조명이 바짝 붙어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낮 씬의 경우 인물 조명은 모두 플로어에서 진행했습니다. 세트에 달린 기본 반사와 비교했을 때 광원이 인물과 가까워지고 훨씬 부드러운 빛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Arri-S30C나 Astera-타이탄, Aputure-300x, Peribounce-울트라바운스 등 ENG 조명 장비를 적극 활용했고, ENG로 촬영한 듯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림 2. BS를 끊어가는 모습, ENG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물 가까이서 조명한 모습

세 번째, 밤 씬의 경우 기본 반사(3200K)와 T5(4000K)로 색 충돌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ED를 전면 도입했던 저번 드라마 <친절한 선주씨>와 달리 이번 드라마는 2개 세트 정도밖에 LED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3. T5(4000K)로 인물에 블루를 묻힌 모습

입체감

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쉽게 말해 ‘분위기 있는’ 조명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분위기 있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조명을 참고하면서 입체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입체감을 만드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컬러와 블랙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림 4. 컬러로 입체감을 더한 넷플릭스 <D.P.>와 <오징어게임> 속 장면

먼저, 컬러로 만든 입체감입니다. 왼쪽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오는 낮은 색온도의 화이트와 오른쪽의 마젠타가 충돌하면서 얼굴에 입체감을 만듭니다. 오른쪽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오는 레드와 오른쪽의 블루가 얼굴에 입체감을 만듭니다. 이렇게 충돌한 컬러들은 인물의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거나(왼쪽), 영상에 터질 듯한 긴장감(오른쪽)을 만듭니다.



그림 5. 컬러로 입체감을 더한 드라마 장면들

왼쪽 장면에선 화가 난 설희 얼굴에 앰버가 굵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장면은 경채 얼굴에 앰버와 스틸 블루를 충돌시켰습니다. 대본을 읽고 해당 씬을 지배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밤 씬에 T5(4000K)의 푸른빛을 사용한 것도 블루가 얼핏 단조로울 수 있는 화이트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입체감 때문입니다. 특히 난색과 한색을 같이 사용하면 색들이 충돌하면서 어두우면서 밝고, 따듯하면서 차갑고, 가까워지면서 멀고, 채도가 떨어지면서 높아지는 더욱 입체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림 6. 렘브란트 자화상(1629), 배우에게 블랙으로 입체감을 더했다

다음은 블랙으로 만든 입체감입니다.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는 이탈리아어로 ‘밝음(chiaro)’과 ‘어둠(oscuro)’을 뜻하는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 기법을 사용하여 극적인 명암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렘브란트 조명을 받은 배우는 렘브란트 그림처럼 강한 명암 대비를 통해 3차원적인 볼륨감과 깊이를 얻어 실제로 튀어나올 듯하고 생생하게 느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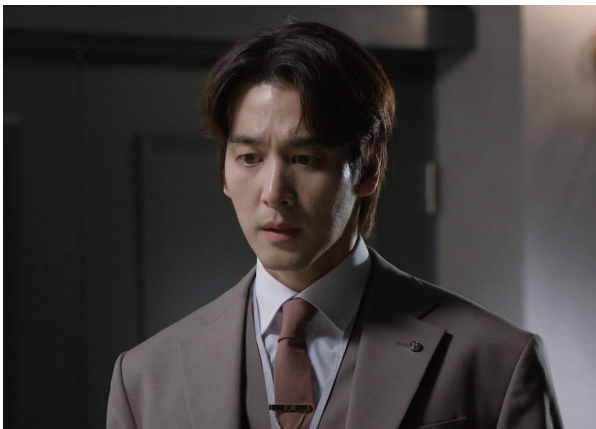


그림 7. 인물의 블랙 차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얼굴의 명암 대비 차이와 그에 따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물에 블랙이 있는 그림(왼쪽)과 블랙이 없는 그림(오른쪽)을 비교해 볼 때 블랙이 있는 그림이 더 극적이고 입체적이긴 하지만, 일일드라마 특성상 과한 블랙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복수극이라는 극의 특성과 일일드라마라는 방송의 특성 그리고 저녁 시간인 방송 시간대 모두 고려하다 보니 적절한 블랙을 찾는 것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림 8. 조명을 추가해 햇빛이 쏟아지는 것 같이 만든 장면

입체감을 위해 꼭 블랙을 얼굴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세트 한쪽에 창을 가정하고 쏟아지는 햇빛으로 길게 하이라이트를 만들면 세트 전반적으로 블랙과 화이트가 교차하면서 입체적인 FS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을 인물 어깨에도 최대한 묻혀 BS에서도 최대한 낮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입체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9. 날카로운 빛을 그대로 맞춰 구원받는 느낌이 들게 만든 장면



그림 10. 마치 구원처럼 쏟아지는 빛 한줄기, '쇼생크 탈출' 포스터

배우의 얼굴은 웬만하면 부드러운 빛을 조명하지만, 가끔 날카로운 빛을 그대로 맞출 때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의 비밀을 실토하고 용서를 비는 장면입니다. 대본을 읽을 때부터 장면이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인물과 세트에 햇빛이 강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를 보면 비슷하게 쏟아지는 빛으로 구원을 비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스팟 조명이 드라마의 서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빛나길 바랍니다.

조명 디자인

조명 디자인의 경우 **대본 - 기획 - 레퍼런스 - 콘티** 순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예컨대 두식이 갇히게 되는 정신 병동 세트의 경우 대본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전체적인 조명(날카롭거나 부드러운)과 컬러의 느낌을 간략히 적어두었습니다. 이후 실제 폐가와 공포 영화의 이미지들을 레퍼런스 자료로 찾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티 대본이 나왔을 때, 조명의 정확한 종류와 위치 그리고 컬러를 설정하고 디자인했습니다.

대본&기획

#86/24
S#24. 정신 병동 / D

두식, 자진 기색
연락한 채 침대 위에
무기력하게 날브러져
오으면
출입문 열리고 썩
들어오는 알뜰에 밥과
나물 반찬들 뒤섞여
몹시 개밥 같은
배주알의 음식을 보자
확 열이 오르는.
두식 어떠한 개밥을 나더러
먹으라고 - 나들이나 치약어!!!
알뜰과 단인 출입문에
집어던지는 두식.
곧 시방으로 뛰는
음식물을 난장판
속에서 분을 못 이겨
씩씩대는 두식에서.

-> 전반적으로 highlight/contrast

#88/27
S#27. 정신 병동 / N

어둠이 내린 말실 안
흑흑흑 울음소리 새
나오는.
모양새 빠져서 저마
범은 대낮에는 못 울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사람게 울음
도대에는 두식.

-> 어둠계, base에 blue

#86/28
S#28. 정신 병동 / D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채 인구부터
음식물로 난장판인
저소를 둘러보다가
침대 위에 팔베개 베고
등 돌린 채 웅크리고
오로 누워 있는 두식을
확인하는.

-> 바로 다음씬 N 해질녘 C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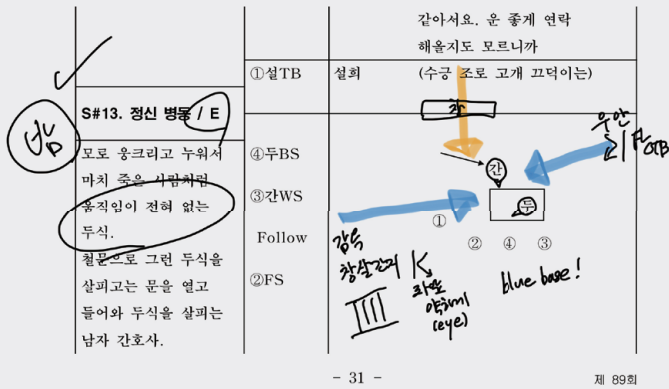
인물에 hard light
두식 back에 강하게

레퍼런스



그림 11. 정신 병동 대본&기획, 디자인 때 참고한 레퍼런스

콘티



- 31 -

제 89회

그림 12. 콘티, 드라마 장면(정신 병동)

드라마 장면



정신 병동 밤씬은 어떻게 세트에 배신, 공포의 감정을 녹일지 고민하다가 전체적인 톤을 블루로 잡았습니다. 모든 기본 반사에 201(Full CTB) 필터를 씌웠고 밤 창과 창살도 블루로 갔습니다. 사실 DI에서 할 수 있지만 조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최대한 해봤고, 세트에 전반적으로 깔린 블루가 정신 병동이 가지는 폐쇄성과 공포감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 받은 두식의 황량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살리길 바랐습니다.

MBC 일일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조명 제작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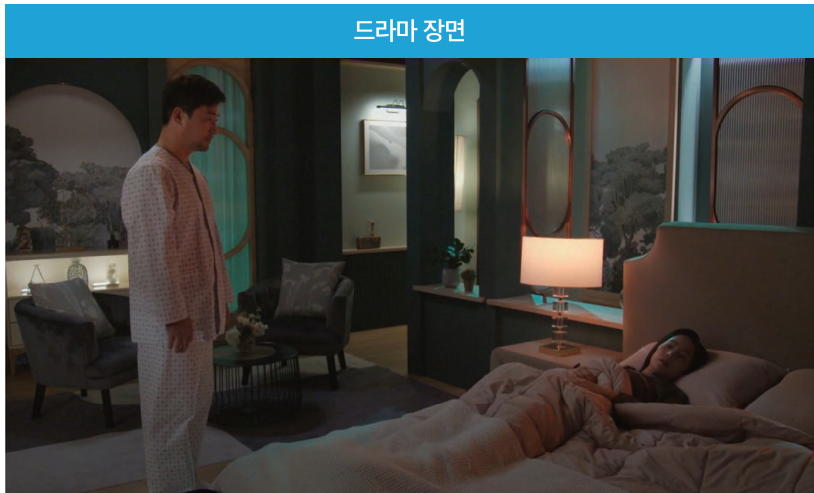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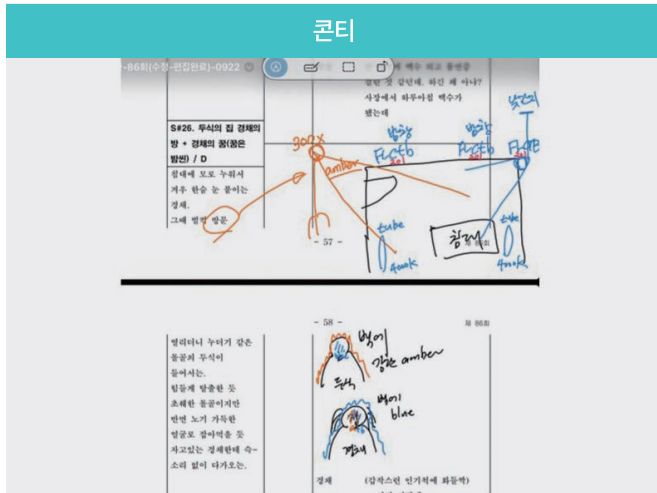


그림 13. 콘티, 드라마 장면(꿈속 장면)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씬은 두식이 자신을 정신 병동에 가둔 딸의 꿈에 나타나 목을 조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분노가 주된 감정이라 레드 계열인 엠버를 쓰고 싶었습니다. 보색인 스틸 블루를 묻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느낌도 주고 싶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컬러가 인물 모두에게 묻으며 충돌하는 느낌을 주면서 세트는 고요하지만, 경체의 마음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유독 신경 쓴 것은 프레임 안에 있는 광원들로 조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쓰고 싶은 컬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림 안에서 설득이 되는 빛과 컬러여야 자연스러움을 깨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화면상 엠버는 침대 옆 스탠드에서, 블루는 밤 창에서 보입니다. 즉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빛과 컬러가 어색하지 않다는 나름의 변명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빛은 프레임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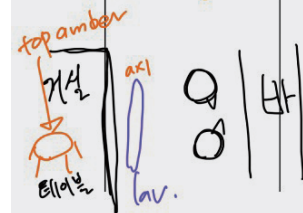


그림 14. 관계에 따라 컬러를 다르게 묻힌 장면(엠버와 라벤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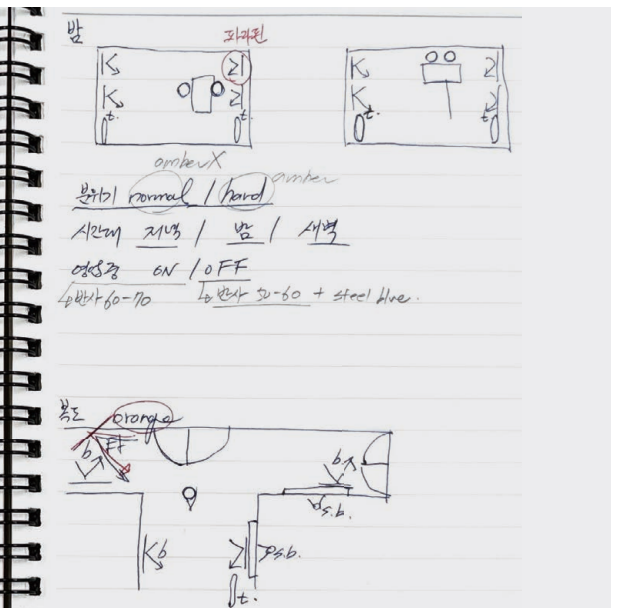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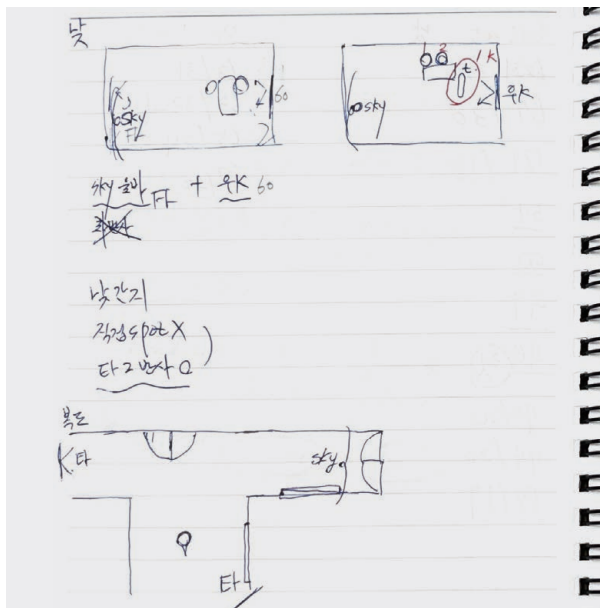
오른쪽 장면을 보면 약혼을 한 사이인데도 묘하게 계약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장면처럼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조명하는 컬러인 마젠타나 앰버 대신 블루 계열이 더 많이 섞인 라벤더를 사용했습니다. 라벤더가 측면에서 묻어 서로를 믿고 사랑하기보다 상대를 이용하고, 빌미를 잡아 협박하려는 경채와 선재의 양면적인 느낌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명 콘티 대본을 그리며 좋았던 점은 현장에 제가 원하는 느낌을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우측의 예시처럼 그린 콘티들을 현장에선 더 쉽게 이해했고, 그만큼 조명을 설치하거나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콘티	
태양을 삼킨 여자-88회(편집완료)-0922	
- 10 -	
제 88회	
호칭에 불쾌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S#4. 두식의 집 홀바 / E	
나란히 앉아서 술잔 기울이는 경채와 선재.	
경채	장모님 소리에 경계 하던데
선재	일부러 더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치를 떨고 나가떨어질 테니까.
경채	(웃고) 그런 생각까지 하는 줄 몰랐네...
선재	말씀 드렸잖아요. 전 사장님이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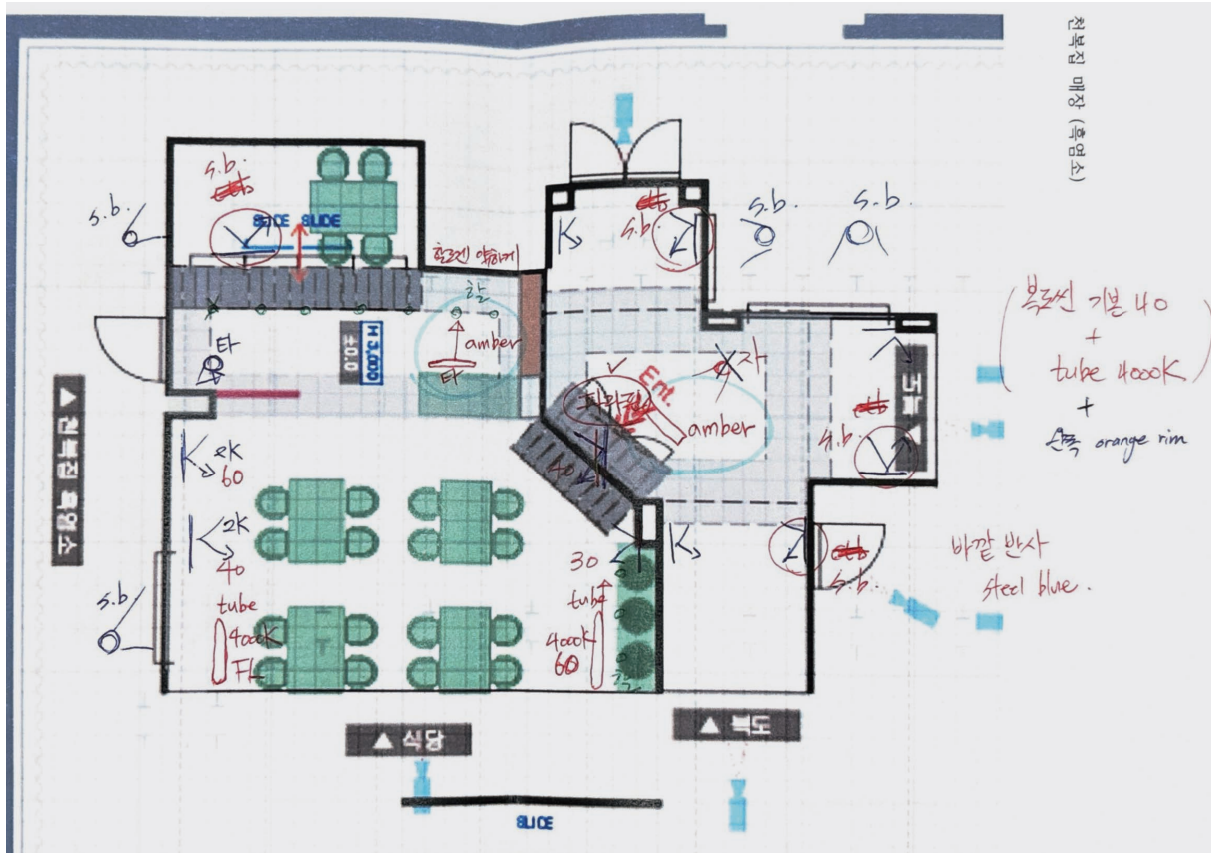



그림 15. 홀업소 매장 씬의 장면들, 세트 디자인 및 조명 수정 사항 메모한 것

이번 드라마는 장익선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친절한 선주씨>에 이어 <태양을 삼킨 여자>까지 400일의 드라마 여정을 마무리 지으며,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멀티캠 동시 녹화라는 악조건 속에도 어떻게든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선배들을 보며 늘 자극받고,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빛의 방향에 대한 고민, 입체감에 대한 고민, 그림자에 대한 고민, 컬러에 대한 고민, 어떤 빛이 가장 자연스럽게 또 입체적인지 매 순간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어려웠고, 그만큼 뿌듯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